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선거 10월31일

‘합의추대론’ 모락모락

“고조된 이미지 살리자” 설득력
“단독후보 나올수 있나” 회의론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10월 31일로 정해진 가운데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뜨는 배경은 최근 원직에 둔 법장 스님의 법구 기증과 보훈금의 승려노후 복지기금화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불교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구본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 총무원장을 추대하지는 의견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졌던 것에 기인한다. 합의 추대론을 내세우는 측은 “법장 스님 원직 후 사회 전반에서 불교의 이미지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자칫 선거 부자증이나 후유증 등 부작용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 추대를 위한 움직임은 현실로도 나타났다. 중앙총회 정책모임 일승회와 화인회를 주축으로 한 18곳(위일 2곳 포함) 교구본사주지들은 9월 20일 대전 유성에서 모임을 열고 ‘공명선거’

와 ‘총무원장 합의 추대’에 합의한 뒤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추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총회의원, 비구尼, 교구본사 주지 등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추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선거법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합의 추대를 위해서는 단독 입후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문중과 계파간 사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일 열린 교구본사 주지 모임에 정계사 고운사 금산사 월정사 관음사 은해사 주지가 참석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정책 공조를 약속한 일승회와 화인회뿐만 아니라 보림회나 금강회 모두 이해관계 따라 저울질하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향후 조계종의 ‘선거국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총무원장 선출 일정과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며, 선거인단 선출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각 교구 본사별로 실시된다. 후보자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다.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h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루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시작 말 아끼고 관망하는 듯 하지만...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직 이후 차기 총무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후보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총무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장’ 일뿐만 아니라 조계종의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허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스님은 대략 10여명.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도영, 전 중앙총회의장 지하,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중앙총회 부의장 원택, 대흥사주지 보선, 은해사주지 법다, 군중교구장 일면, 중앙총회 의장 법등 스님 등이 잠재적인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와같

이 이외의 인물이 후보로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님들은 아직까지 말을 아끼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조계종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승회와 화인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관 스님은 말상좌 세민 스님(前 해인사 주지) 등이 추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관 스님의 핵심 측근은 “종도들이 추대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현행과 같이 선거를 통한 선출이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승회와 화인회가 새 총무원장 선출을 추대제로 할 것을 합의한 것

과 무관하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총회 의장이면서 여권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법등 스님은 조심스런 반응이다. 법등 스님은 “법장 스님이 잘 가꿔온 텃밭에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내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야당격인 금강회와 보림회 역시 9월23일 현재까지는 확실한 후보자를 세우지는 못한 듯 하다. 특히 불교중앙박물관과 동국대 문제로 일승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보림회는 더욱 몸을 낮추고 있다. 금강회를 이끌고 있는 보선 스님은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과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면

서도 “나보다는 더 좋은 스님이 나와서 종단발전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선 스님과 함께 금강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택 스님은 출마 자체를 강하게 부정했다. 스님은 “사형인 법전 스님이 현재 조계종 중정으로 계신 상황에서 출마는 말이 안 된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상황에 따라 원택 스님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다 스님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 법다 스님은 “추대형식이 되고, 종도들이 뜻을 모아준다면 출마를 생

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 23일 현재지하, 도영, 정련, 일면 스님 등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상중(喪中)이어서 스님들이 선거와 관련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9월말-10월초 사이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사실상 말을 울린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물밑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다. 박병영·강유신·조용수·유철주 기자

“중립선거 노력... 부정팬 사법조치”

총무원장권한대행 현고 스님 담화문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9월 2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중무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선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도들이 우려하는 선거과정과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 및 사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고 스님은 “지금 우리사회는 불교를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과 불

자들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이때 과거와 같은 감정이 재연되거나 부정적인 승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초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종도들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고 스님은 담화문 발표 후 기자

회견에서 “부정선거 정황증거가 포착되면 중립성에 의한 조치뿐 아니라 사법적 조치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고 스님은 이 외에도 “중무원의 선거중립을 분명히 천명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중무원의 선거 직접 개입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공정선거로 종단안정 유지 교구본사주지회의서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는 9월 23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로 결의했다. 통도사 화엄사 선운사 고운사 백양사 5개 교구본사를 제외한 19개 교구본사 주지와 군중교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종단 안정을 위해서

는 공정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총무원장 권한대행체제에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승려노후복지와 카트리나 피해 성금 모금에 전 종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남동우 기자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구성

선거감시활동 돌입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전국 교구본사 주지들이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를 구성해 선거감시활동에 나섰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준

비회원 금강 스님 19명, 이하 청정선거운동본부는 9월 26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정선거운동본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권선거 차단 및 청정한 선거문화풍토 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고 ▲완전한 선거공명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며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청정선거 실현의 원칙 및 실천방안 제시 ▲후보자 청정선거 서약 ▲부정선거 감시, 신고 청구 개설 ▲중무원의 엄정 중립 촉구 및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청정선거운동본부 금강 스님(해남

미항사 주지)은 “조계종의 스님 모두에게 문호는 개방돼 있다”며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참여 불교계연대,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들도 조만간 선거감시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Advertisement for Gapsa Daekjuk Jeongsa Anae. Title: 신령스런 삼신과불님(국보298호)과 함께하는 천년의 산울림 감사 대축제 개산대제·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산사음악회. Includes details for the 1585th anniversary of Gapsa Daekjuk and the 413th anniversary of Jeongsa Anae, with dates, times, and locations for various events.